

문화

행복한 책임기

할레드 호세이니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현대문학 권>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은 웬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끝없는 전쟁과 굶주림, 탈레반으로 상징되는 테러가 먼저 연상된다.

지금도 내전의 불구덩이 속에서 '희망 없는 곳'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 그곳에 마리암과 라일리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처첩(妻妾)의 운명으로 만난 이 두 여인이 무슬림 원리주의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관습을 깨고 나오는 처절한 몸부림을 흡입력 있게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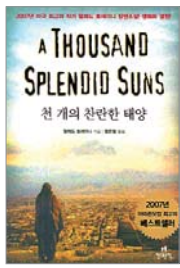
라일리의 아버지인 바비는 바미안에 있는 2천여 전에 조각된 절벽 불상을 보면서 그의 딸에게 말한다.

".....우리는 저기에 있는 벽과 같다네. 부서지고, 쳐다보아야 할

처 살해한다. 마리암은 처형을 당하면서 생각한다.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세상을 떠난다고, 어머니가 되어, 드디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난다고, 이렇게 죽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마리암이 타하물을 깨뜨리는 첫 행위는 살인이었다. 단순히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폭압과 억압, 제도적 편견과 자신의 실존에 대한 무지를 살해한 것이다. 타하물은 죽고 용기가 산 것이다.

끊임없는 침략의 역사를 가진 아프가니스탄은 비단 부르카 아래 숨 쉬는 매 맞는 여자와 같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

찬란한 슬픔으로 가득한 사랑·감동

다들 것도 없었지만, 아직도 저렇게 서 있지 않은가....."

'아직도 저렇게 서 있다'는 것은 생존이다. 잦은 침략(폭력)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인내는 '타하물'을 낳는다. 타하물은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맹목적으로 '참는 것'을 뜻한다.

'하라미' 즉 혼외정사로 태어난 마리암의 인생은 타하물 그 자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마리암에게 "여자가 가져야 할 것은 단 하나의 기술만 있다. 그것은 타하물이다."라고 주입시킨다.

어른이 된 마리암은 남편의 폭력을 참고 견딘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남편은 여자가 밖에서 굶어 죽지 않고 강간당하지 않기 위한 절대적인 보호자이며 권위다.

하지만 남편이 후처인 라일리를 볼 줄라 죽이려 하자 그를 삼으로 내려

모습이고 이런 역사는 우리네와 닮았다. 17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이예브타리지가 장미와 튜립으로 가득 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너무 아름다워 인간의 사악한 눈으로 보호해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하지만 카불은 현재 잿더미와 다름 바 없고 2천년 동안 존재감을 발하던 바미안의 불상은 이슬람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레반이 폭파해버렸다. 순식간에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작가는 카불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인습을 깨고 용기 있는 사랑을 실천한 마리암과 라일리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나 벽장 속, 우리네 가슴 속에 있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바비가 자신의 딸, 라일리에게 한 말은 되새겨볼만하다.

"라일리, 우리 아프간 사람이 처부술 수 없는 유일한 적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 자신이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끝없이 펼쳐진 바다

끝없이 펼쳐진 공연과 이벤트

초여름 주말과 휴일 여주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에서 이색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즐기세요. 박람회에는 첨단 기술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와 각국의 전통 민속놀이 펼쳐지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다. 또 아이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마음껏 놀고, 악기도 만들어 보는 등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다.

▲여수 밤바다가 뜨겁다=그림처럼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박람회의 매력 중 하나다. 바다 위 무대인 빅오에서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혜유원회가 'K-POP 한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그룹 비스트(BEAS)와 박재범, 그룹 비투비(BTOB), 에이핑크(A pink) 등이 출연한다. 박람회 최고 인기 상품인 빅오쇼를 보기 위한 관람객들이 빅오 해상무대 관람석과 주변에서 미리 줄을 서기 때문에 이 공연을 제대로 즐기 위해서는 서둘러 입장해야 한다.

또 천막극장에서는 작품성을 인정 받은 '휴먼코미디'와 너버벌 퍼포먼스 '점프' 공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선사하는 화려한 무대=브로드웨이가 극찬한 엔터테인먼트 오션블라스트피버(Ocean Blast Fever) 공연도 놓치면 후회한다.

오션블라스트피버는 클래식, 재즈, 팝, 록, 테크노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300종 이상의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한다. 34명의 연주자가 펼쳐보이는 화려한 인무는 단순히 듣



그룹 '비스트'

짜릿한 감동과 체험, 여주엑스포는 '문화박람회' 스타들 무대·각국 전통놀이 참여할수록 즐거워

는 음악에서 시각적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10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빅오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앞서 9일 오후 4시 해양광장에서 풍고민주공화국 국가의 날을 맞아 풍고 전통 민속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낮 12시에는 터키 군악대가 이곳에서 신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또 10일 오후 3시에는 벨기에 국가의 날을 기념, 벨기에의 화려한 문화 공연이 곁들여진다.

▲만들고, 연주하고, 아이들도 즐

겨워=아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눈여겨 봐야 한다.

어린이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가루야가루야'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체험이 끝난 뒤 몸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 주는 공기압축기(에어 컴프레서)도 마련돼 있으니 마음껏 즐겨도 문제없다. 어린이극장에서 하루 15회, 회당 40분가량 진행된다.

연안어업체험장에서는 국내 어업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실물 어선을 전시하고 미니 양식시설도 갖추고 있다. 원양어업체험장에서는 원양어선의 조타실에서는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는 과정이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 밖에 코코넛 알레갱질 등을 활용해 오션 마라카스를 만들어 보는 해양스쿨-바다악기체험도 추천 체험 프로그램이다.



여주엑스포에 가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가루야 가루야'.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울마루 개관 기념 공연=최근 여수에 개관한 첨단 공연장 '에울마루'에서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GS칼텍스가 지은 '에울마루'는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말야 화제가 된 공간으로 1400석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65년 창단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챔버오케스트라인 바로크합주단과 중국 칭타오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주회가 9일 오후 7시 열린다.

독일 출신 게르트 헤르클로츠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베버의 '오이리안테' 서곡을 들려주며 박기범(춘천교육대 교수)씨가 하이든의 '트럼펫협주곡'을, 전수진(백석예술대 교수)씨가 투리니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랩소디 교향곡'을 협연한다.

이 밖에 코코넛 알레갱질 등을 활용해 오션 마라카스를 만들어 보는 해양스쿨-바다악기체험도 추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코코넛 알레갱질 등을 활용해 오션 마라카스를 만들어 보는 해양스쿨-바다악기체험도 추천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다.

▲에울마루 개관 기념 공연=최근 여수에 개관한 첨단 공연장 '에울마루'에서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GS칼텍스가 지은 '에울마루'는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말야 화제가 된 공간으로 1400석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1965년 창단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챔버오케스트라인 바로크합주단과 중국 칭타오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주회가 9일 오후 7시 열린다.

독일 출신 게르트 헤르클로츠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박쥐' 서곡, 베버의 '오이리안테' 서곡을 들려주며 박기범(춘천교육대 교수)씨가 하이든의 '트럼펫협주곡'을, 전수진(백석예술대 교수)씨가 투리니의 '피아노 솔로를 위한 랩소디 교향곡'을 협연한다.

이 밖에 코코넛 알레갱질 등을 활용해 오션 마라카스를 만들어 보는 해양스쿨-바다악기체험도 추천 체험 프로그램이다.

한여름밤, 브람스의 낭만을~

8일 광주시향 공연, 피아니스트 김태형 협연

흔히 브람스의 곡들은 쓸쓸한 가을날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한다. 한여름에 듣는 브람스는 어떤 느낌일까.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브람스의 곡들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브람스 one'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된다.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끄는 무대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사진>이 협연하는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이다.

지난 2004년 한국인 최초로 포르투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1위와 베토벤 특별상을 수상하며 등장한 김태형은 토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지난 2010년 세계 3대 콩쿠르중 하나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5위에 오르며 클래식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현재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수학중인 그는 금호아시아나 솔리스트즈 단원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태형

디카로 찍은 세상... 사람들...

광주대 평생교육원 13일까지 '디카10배 응용하기' 사진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디카10배 응용하기'(회장 송현주) 회원들이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

1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광주·전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유산, 사람사는 이야기를 테마로 흑백과 컬러 사진 80여점을 선보인다.

송현주회장은 "회원들이 사진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알아가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꾸준한 작품활동



송현주 작

을 하고 개인전과 사진집도 내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16-9820-236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30% OFF SALE. Includes logo, date (3/15-8/31),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Bokgodang Hanakbap. Features images of ginseng and bap, and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a 60% to 15% price reduction.